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경 미

2013년 8월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정 환

양 경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양경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국문 초록>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양 경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상, 외상성 사건, 외상후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2.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3.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4.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5.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6.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주지역 경찰관서 4개소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297명의 사례를 사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성원(2007)이 Thomas-Riddle(1999)의 직무사건 목록을 경찰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직무사건 목록(Lisd of Work Events)을 이옥정(2010)이 한국 경찰관 실정에 맞게 1개의 문항을 가감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하위항목으로 경험한 외상성 사건 수와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충격이라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사용하였다. 이는 1979년 Horowitz가 개발한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를 1997년 Weiss와 Marmar에 의해 수정판 IES-R이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은헌정 외(2005)가 번안하고 수정한 것이다. 이 측정도구는 과각성, 회피, 침습이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1차적 증상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주성아(2009)가 번안한 Carver(1997)의 The Brief COPE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회귀분석 4단계를 거쳐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넷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제주 지역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 사이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경찰관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외상성 사건	5
1) 외상	5
2) 외상성 사건	6
3)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7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9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개념	9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진단	9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주요 증상	11
4) 외상성 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의 관계	14
5)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15
3. 대처양식	16
1) 대처양식의 개념	16
2) 대처양식의 매개역할	18
4. 선행연구 고찰	20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절차	21
3. 연구도구	22
4. 자료처리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
2. 주요 변수의 특성	30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34
4. 외상성 사건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36
5. 가설검증	38
V. 논의	52
VI. 결론 및 제언	55
1. 결론	55
2. 제언	56
참고문헌	57
Abstract	61
부 록	65

표 목 차

표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기준	10
표 2.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 문항과 신뢰도	23
표 3. 스트레스 대처양식(The Brief COPE) 문항과 신뢰도	24
표 4.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
표 5. 외상성 사건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30
표 6. 경찰관 직무상 경험할 수 있는 외상성 사건 목록	31
표 7.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기술통계	32
표 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술통계	33
표 9.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집단의 빈도분석	33
표 10. 완전 PTSD 집단의 충격적인 사건 사례	34
표 11.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35
표 12. 외상성 사건 경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36
표 13.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38
표 14.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40
표 15.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43
표 16.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45
표 17.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47
표 18.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49
표 19. 연구결과정리	51

그림 목 차

그림 1.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26
그림 2.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40
그림 3.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42
그림 4.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44
그림 5.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46
그림 6.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48
그림 7.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업무의 범위)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충격적인 사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경찰관의 업무는 위험성이라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관 본인이 피습을 당하여 다치거나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기도 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접하기 어려운 살인, 강간, 교통사고, 등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황인희, 2009).

실제 우리 나라 경찰관들의 최근 5년간('08~'12) 순직 및 공상 발생 현황과 원인을 살펴 보면, 순직자는 67명, 공상자는 9,681명에 달하며, 그 중 피습부상과 교통사고로 5,480명이(순직 22명, 공상 5,468명) 죽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이버경찰청 경찰통계자료, 2013). 이는 경찰의 업무가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경찰관은 위험성이라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 즉 외상성 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다. DSM-IV(APA, 1994)에 정의된 외상성 사건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외상성 사건의 예로는 교통사고, 강간, 폭행, 유괴, 살인, 화재, 전쟁, 자연재해(지진, 홍수, 화산폭발) 등이다(권석만, 2003). 황인희(2009)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관 대상 550명 중 88,4%가 업무 중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다고 보고 하였다. 경찰관은 비교적 충격이 덜한 주취자 보호, 폭력 사건, 각종 민원사건에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예기치 못한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고 깊게 관여하게 된다.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인 후유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이어지기도 한다(남보라, 2008). 경찰청이 12년 6월 전국 경찰 2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전국 경찰관 스트레스 조사’ 결과 1만 4271명의 응답자 중 37.2%에 달하는 5309명의 경찰관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ws1, 2012.11.18). 그 중 183명은 환각과 악몽 등에 시달리는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보유자도 1569명(11%)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 경찰관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현재 겪고 있거나 보유자라는 설명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과중한 업무와 참혹한 사고 현장 목격, 총기 등 화기를 다루어야 하는 긴장감 등이 꼽혔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여러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일차 증상인 재경험, 과각성, 회피의 증상 뿐 아니라 이차 증상인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 그리고 술과 향정신성 등의 약물 남용 등도 수반된다. 김순진 외(2007)에 의하면 특히 우울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있어 일반적인 증상이며, 이는 자살의 전조가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72건의 경찰관 자살사고가 발생했다. 자살 원인은 신병비관과 우울증 31건, 가정불화 15건, 개인비리 6건, 이성문제 5건 등의 순이었다(news1, 2012. 11. 18.). 또한 배점모(2011)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복지감을 떨어뜨린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황인희(2009) 연구에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누적에 소진을 발생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경찰관들은 우울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대형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연합신문, 2009. 10. 27.). 이처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는 경찰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다루기 위해 주목할 점은 같은 외상성 사건 경험을 하더라도 개인 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여부와 증상의 정도는 각기 틀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개인의 취약성과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옥정(2010)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경찰관이 경험하는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보다는 경찰관의 여러 개인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성 사건 자체가 아닌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즉,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라 외상성 사건 경험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신화영, 2012) 연구자들은 여러 요인들 중 사회적 지지와 대처양식에 특히 관심을 갖고 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LeBlanc et al., 2008; Marmar, et al., 2006). 이중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그 형태에 따라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작용 또는 역완충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Blanc et al., 2008; Patterson, 2003). 이처럼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들 중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관이 외상성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다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관한 문제는 조직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나 내·외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제주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할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일관된 연구 결과가 없다. 따라서 제주지역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실정을 확인하고,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경찰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현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관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1-1]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1-3]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1-4]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1-5]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1-6]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외상성 사건

1) 외상의 개념

외상(trauma)이란 원래 외부로부터의 상처를 의미하지만, 이상심리·정신병리학에서는 정신적 의미의 상처를 의미한다(김순진 외, 2007:15).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성폭행 등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 위협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외상이라고 한다(곽대경 외, 2011). 즉, 사건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받는 정신적인 영향을 표현하는 개념이다(Wilson & keane, 2004; 남보라, 2008). 초기 외상 관련 연구에서 외상의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내려졌고, 그 개념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전유진, 2010). 외상이란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 이후에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80년 DMS-III에 PTSD가 공식적인 정신장애로 포함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연령, 성별, 그리고 외상사건의 유형들에 따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안현의, 2005). 그 중 Figley(1988)가 불안이나 우울, 무쾌감증, 집중력 손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상을 파악하려고 하였고 이후 Norris(1990)에서 강간이나 학대, 폭력,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슷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외상이 “어떤 사건 이후에 개인에게 남겨진 심리적인 충격 및 상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갔다(김진경, 2012). 외상의 영향은 그 경험이 대인관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다면적이고 가학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행될 때, 아동기에 발생했을 때, 애착관계 내에서 일어났을 때 가장 광범위한 경향이 있다(Allen 외, 2005; 권정혜 역, 2010).

2) 외상성 사건의 개념

외상, 즉 사람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는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외상성 사건 (traumatic event)라고 하며 외상은 필연적으로 외상성 사건이 선행되어야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개인에게 DSM(미국심리학회 진단·통계위원회가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정의된 외상성 사건의 개념은 계속해서 재정의 되었는데 이를 살펴 보면, DSM-III에서 PTSD가 공식 진단명으로 인식되었고, 재경험, 반응의 둔화, 과각성 증상과 같은 증상적 반응으로 PTSD의 범위를 분류하였다. 이후 DSM-III-R에서는 일반적 인간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사건 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이하 APA), DSM-IV(APA, 1994)에서는 개인의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 죽음 또는 죽음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포함하며 극심한 불안, 무력감 혹은 공포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재정의 하였다. DSM-IV에 따르면 외상사건은 교통사고, 사체 목격, 중요한 타인의 사망 또는 질병 등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될 수 있다(송승훈, 2007). 외상성 사건은 사람들에게 통제감, 연결감, 그리고 의미를 제공해 주는 일상적인 보살핌의 체계를 압도하고, 사건이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삶의 적응 능력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며, 평범한 불은과는 다르다. 또한 대개 생명과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거나 폭력이나 죽음과 직접 맞닥뜨리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어 인간을 무력감과 공포의 극단에 직면시키고, 파국적 반응들을 유발한다(Judith Herman, 1997; 최현정 역, 2007).

김순진 외(2010)에 의하면 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특징을 7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개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둘째, 개인의 신체적 온전함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셋째, 개인이나 자녀, 배우자, 친척, 친구들에게 위협 및 위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넷째, 개인의 가정·공동체의 급작스런 붕괴를 초래할 경우, 다섯째 타인이 과거 및 현재에 심하게 상처를 입거나 죽는 것을 목격한 경우, 여섯째,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 일곱째, 친척 및 친구에게 심한 위협이나 상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외상사건 유형에는 전쟁(전쟁에 참전, 전쟁지에서 생활), 강제수감(인질이 된 경험, 납치당한 경험), 자연재해(홍수, 지진, 태풍, 해일), 화재(화재, 폭발), 교통사고(자동차, 비행기, 기차 사고 등), 건축물 붕괴(건물 붕괴, 교량붕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이즈, 암), 신체적 폭력(범죄, 총기사고, 배우자나 부모 또는 또래부터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이 있었다(김자혜, 2011).

3)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찰관은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 군인, 소방관, 응급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외상사건 노출로 인한 PTSD 고위험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권용철, 2012). 이들은 제일선에서 사건 현장들을 접하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즉각 처리해야 하므로 본인의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경찰관은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사건현장, 피해자, 범죄자와 일차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외상성 사건 뿐 아니라 직접적인 외상성 사건에도 자주 노출된다. 소방관의 경우 화재 현장, 현장에서 인명 구조 등의 업무를 하며 사건 피해자를 대면하거나 화재 현장을 보게 되는 간접적인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직접 피습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직접적인 외상성 사건에도 많이 노출된다. 또한 군인은 전시상황에서 적군과 전투를 하는 것이지만 경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대상과 대치하게 된다. Violanti(1996)는 경찰관들과 군인들을 비교하며, 경찰관들이 ‘평화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묘사하였다(이옥정, 2010).

국내 경찰관의 피해 경험 실태를 연구한 신성원(2010)에 의하면, 경찰관은 업무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피해유형이 경찰관서에서의 음주소란, 기물파손, 악의적 공무집행방해, 욕설 등 모욕행위, 직접적 폭행행위 등 매우 다양한 범주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경찰관은 업무 자체가 위험성이 크고 잠재적인 외상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Vincent(1999)는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으로 동료,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심각한 부상을 경험, 공무 수행 중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심각한 부상을 경험, 많은 수의 사망 사건을 다루거나 목격, 위험한 차량 추격,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SWAT로써의 임무수행, 인질범과의 협상, 동료의 부정 비리를 목격, 해고의 위협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이경화, 2011). Bell(1995)은 외상사건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인지적 판단을 하게 되어 이전의 대처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상적 대처기술이 마비되어 현저한 심리적 충격과 고통 등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황인희, 2009). Blau(1994)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은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괴로운 사건”으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사건은 경찰관이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다. 둘째, 외상사건은 동료, 본인의 신체적 능력, 본인의 지위를 잃는 상실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믿음 또는 이상에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였다(김종길, 2012). 이처럼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며, 외상에 대한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업무 중에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근무 중 흥기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타인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있으며,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성폭행, 학대 받은 피해자들을 목격하는 것 등이 있다.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도로 심각한 외상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극한의 위협적인 요인에의 노출로 인한 정신적·생리적 기능의 파괴적인 영향을 의미한다(Flannery, 1999; 신지은, 2011). 김찬형(2005)은 PTSD 환자들에 대해 한 마디로 “사고는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 그 사고에 대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하게 위협적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다음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을 의미하며, 여러 불안장애 중 하나로써 공황 발작, 공포, 일반화된 불안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정신과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 외에, 외상적 근거를 중요시한다(Allen 외, 2005; 권정혜 외 역, 2010).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DSM-IV의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기준표는 표 1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DSM에 제시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 볼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진단기준 A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외상 및 외상성 사건의 정의, 그리고 외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보여준다. 진단 기준 B에서 D까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임상적 특징들이 제시된다. E 이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과와 하위 유형을 제시한다. 하위유형은 장애의 지속기간과 발생 시기를 근거로 나눈 것이다. 진단기준은 재경험의 증상 5개, 회피 진단증상 7개, 과각성 진단증상 5개를 포함하여 17개의 증상이 기술되어 있다.

표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기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DMS-IV)

A. 다음 두 가지 요소의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경우

- (1)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하였을 때
- (2) 개인의 반응에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반될 때(소아에서는 이런 반응 대신 지리멸렬하거나 초조한 행동을 보인다.)

B. 외상적 사건을 다음방식들 중 한가지(또는 그 이상)로 지속적으로 재경험하는 경우

- (1)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침투적인 고통스러운 회상(이미지, 생각, 지각 등을 포함). 아동의 경우 외상의 주제나 상황이 표현된 놀이를 반복적으로 하기도 한다.
- (2)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꿈이 반복됨. 아동의 경우 내용을 인식할 수 없는 깜짝 놀라는/무서운 꿈을 꾸기도 한다.
- (3) 마치 외상적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낌(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감각, 착각, 환각, 해리적인 환각 재현의 삽화들이 포함되고, 이런 경험은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중독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포함한다). 아동의 경우 그 외상에 해당되는 특수한 재연이 일어날 수 있다.
- (4)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상징하는 내적/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강렬한 심리적 고통
- (5)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상징하는 내적 또는 외적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생리적 재반응

C. 외상과 연관된 자극을 계속 회피하려고 하거나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외상 전에는 없었던)가

다음 중 세가지 이상 보일때

- (1)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하려 한다.
- (2)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을 피하려 한다.
- (3)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 (4)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 (5) 타인으로부터 소원해지거나 분리되는 느낌
- (6)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예 : 사랑의 감정을 느낄수 없다)
- (7) 미래가 단축된 느낌(예 : 직업, 결혼, 자녀, 정상적인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D. 증가된 각성반응의 지속적 증상(외상 전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이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보일때

- (1)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 (2) 성마름 또는 분노의 폭발
- (3) 집중의 어려움
- (4) 지나친 경계
- (5) 과장된 놀람반응

E. 장애(진단기준 B,C,D의 증상)가 1개월 이상 지속될때

F. 장애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손상을 초래한 경우

출처 : 김순진 외 (2007)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외상 경험 후 3개월 이내에 발병하는데 이는 사건에 대한 회상을 비롯해 수치심이나 죄책감, 속상하게 하는 꿈이나 사건에 대한 악몽, 사건에 대해서 회피하는 생각, 둔감해지는 느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는 것, 자기 파멸적인 행동, 수면 및 섭식 장애, 기억 문제, 집중력 저하와 쉽게 깜짝 깜짝 놀라는 반응 그리고 예전에 즐겨하던 활동에 관해 흥미를 잃고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지은, 201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임상적 특징들에는 일차적인 증상과 이차적인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에 보면 일차적인 증상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한 기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단기준 B와 C에 논의되며, 그에 비해 이차적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증상은 아니지만 일차적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로 진단기준 D에 포함된다.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재경험, 지속적인 회피, 과각성의 증상들 중 한 가지 이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며, 이러한 장애는 외상성 사건의 직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한동안 잘 지내다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재경험(re-experience symptom)에 대하여 프로이드는 “트라우마는 자극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다(trauma is the breaking through of the stimulus barrier)”라고 하였다. 이처럼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화할 수 없는 외상과 관련된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분리 또는 해리하려고 한다(김지영, 2013). 그러나 해리된 자료들은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몸의 감각, 행동, 감정과 같은 다양한 감각적 반응을 수반하며 이는 비자의적으로 나타난다(최송식, 2010). 그리고 외상 사건과 관련된 단서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을 때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예전의 외상 기억이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외부 환경보다는 자신의 내부 상태에 집중하게 되고, 맥락이 결여되고 생생한 감각의 형태로만 입력되는 특성을 가진 외상 기억으로 인해, 침습적으로 외상 기억이 촉발되는 순간, 기억 속에 고립되고 전후의 연결성을 잃게 된다(Saxe et al., 2007; 김동일 역, 2011).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치 현재에 계속해서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외상성 사건이 재현되는 형태로 마치 외상을 겪을 당시로 돌아가 외상을 다시 겪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시각적 재경험을 의미하며 시각적 형태뿐만 아니라 감각, 행동, 감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Michael 등(2005)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치 현재에 계속해서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외상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므로 외상 기억은 현재성(nowness)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김보경, 2012). 재경험 증상 중 특히 플래시백은 재경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다. 전형적으로 매우 생생한 시각이나 다른 감각들을 포함하며 외상적 상황의 한복판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며, 환시를 경험하고, 지각의 왜곡 또는 착각, 본래의 외상과 관련된 냄새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체 감각들도 경험할 수 있으며, 감각 영상만이 두드러진 경우, 플래시백은 과거 경험의 일부라는 자각이 거의 들지 않을 수도 있다(Allen 외, 2005; 권정혜 외 역, 2010).

프로이트는 초기에 외상경험의 이러한 반복적인 침투를 일컬어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 이라며 외상 사건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개념화 하였다. 다시 말해 외상의 경험의 반복적인 재경험은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치유의 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 자네는 외상 경험에 ‘동화’하고, ‘청산’하려는 욕구가 존재하며 성공할 경우 ‘승리’의 감정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무력감이 외상의 핵심적인 결과이며, 회복에는 효능감과 힘의 복구가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말이다(Judith Herman, 1997; 최현정 역, 2007).

또한 외상 경험의 반복적인 재경험은 건강한 해결은 외상적 사건이 더 이상 재경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외상적 사건을 잘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감정을 얘기할수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적응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김순진 외, 2007).

이러한 재경험에 대한 학자들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Reynolds와 Brewin(1999)는 재경험의 증상들 중, 침입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PTSD의 고유한 특징이라기 보다는 우울증의 증상과도 일치하는 일반적인 증상

이라고 주장하였고, Epstein(1990)은 이러한 외상의 재경험이 불편감을 주지만 적응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Weakland, Fiscf, Watzlawick & Bodin(1974)은 외상 후 침입사고와 감정 현상 자체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기능장애를 일으킨다고 보았다(신지은, 2011)

재경험은 외상을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과각성은 정서적 반응 마비 증상으로 이어지며 이처럼 외상과 연관되는 단서들을 회피하거나 단절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 혹은 사회와도 고립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재경험을 피하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잦게 되면, 외상과 연관된 작은 단서조차 단절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삶의 공간을 좁히고, 사회 관계 또한 차단하게 된다. 재경험 그 자체로도 외상을 겪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잘못된 노력 또한 부적응 및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두 번째 주요 특징은 정신적인 마비 또는 정서적인 마취상태 등으로 표현되는 회피(Avoidance symptom)가 있다. 회피는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뿐 아니라 외상이 회상될 만한 장소와 행동 및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진다. 고통스런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점점 더 정서적인 자극을 회피한다. 즉, 감정이 무뎌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중요한 활동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

이러한 회피의 증상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본인의 정서적 고통과 침투 증상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자기 보호하려는 노력이며 자연스러운 방어적 행동일 수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 회피 역시 문제가 된다. 회피는 활동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제한하며, 외상과 화해할 수 있는 처리과정을 방해하기도 한다(권정혜 역, 2010). 이러한 회피 반응은 PTSD가 만성화될수록 외상 이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 되는 등 외상 경험 이후 보다 삶을 제한적이게 한다. 이는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을 야기한다.

또한 트라우마의 저자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자동적으로 해리가 되지 않는 이들은 술이나 진정제를 통해 둔감해지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오히려 증가시킬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상황은 증명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크고 포괄적인 연구인 ‘국립 베트남 참전군인 재적응 연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남성의 75퍼센트

에서 알코올 남용 혹은 알코올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김혜령, 2009).

마지막으로 과각성(hyperarousal)이란 예민한 각성상태를 의미한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작은 반응도 외상을 겪고 난 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각성되어 있어, 항상 신체의 위협에 대하여 경계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도 극도의 놀람 반응을 보인다. 매번 반복 되더라도 마치 매번 새롭고, 위협하고, 놀라운 것인 듯 반응한다(최정혜 역, 2010). 이러한 과도의 각성상태는 깨어 있을 때 뿐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속되어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 특히, 수면곤란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지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극단적인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성마름, 화남, 분노, 적대감 등의 특징이 나타나며,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행동을 보이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도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과각성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투쟁과 도피 반응이 두려움과 분노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따라서 과각성 증상들은 과민성과 분노 폭발을 포함하고 이것은 신경계가 민감화 되어 있다는 징후이며, 회피는 이러한 침습적인 증상과 과잉반응이 마음을 공격하면 이러한 공격에 직면하여 압도하는 자극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기 위한 자기 보호반응이라고 하였다(Allen 외, 2005; 권정혜 외 역, 2010).

4) 외상성 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의 관계

외상성 사건 경험이 반드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Allen 외(2005)에 의하면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원인의 핵심적인 요소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물론,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정신과적 증상이나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높으며 위험의 수준은 외상의 심각도 뿐 아니라 외상에 노출된 개인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탄력성(resilience)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일반인 중 60%의 남자와 50%의 여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을 경험하지만 실제 이

질환의 평생 유병율은 6.7% 정도이며 사건 경험 전의 심리적, 생물학적 사전 요인이 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환 발생과 연관된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의 존재, 둘째, 성격 장애나 문제, 셋째, 부적절한 가족, 동료의 정서적 지원, 넷째, 여성인 경우, 다섯째,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 여섯째, 최근에 스트레스 많은 삶으로 변화, 일곱째, 과도한 음주가 있다. (네이버 건강지식).

또한 김순진 외 (2007) 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위험은 외상, 기존의 취약성 요인,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하며 이러한 예로는 직계 가족에서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 경우,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 혹은 다른 외상적 사건이 있는 경우, 아동기·청소년기의 행동장애, 10세 이전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신경증적 성격, 내향적 성격, 사전 정신질환, 15세 이전 자신감이 낮은 경우, 외상성 사건 전후에 겪은 생활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하였다.

5)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의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어 왔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한다(황인희, 2009).

최근 국내에서도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천 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2009년 5월 7일에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시정신보건센터 등 13개 기관과 함께 경찰관의 스트레스 등을 의학적·과학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고민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효율성 저하와 자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아니라 인천지방청에 국한되어 있어 전반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전문 중앙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곽대경 외, 2011).

이러한 실정에 맞춰 최근 경찰 내부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경부터 총기 사용과 같은 극단적인 경험을 한 경찰관에 한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경찰청 및 서울청 산하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경찰관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받기 위해

서는 이에 관한 전문가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와 정신적인 문제를 경찰관의 개인 능력과 자질로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도 시급하다. 김자혜(2012)에 의하면 경찰관이 조직내부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을 서로 토로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대신 외상을 수반하는 감정을 부인하도록 만들며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였다(Reiser, 1974 재인용).

3. 대처양식

1) 대처양식의 개념

스트레스는 생활자체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는 개인의 대처 차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반응정도가 다르므로 스트레스를 피하기보다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하는 대처능력에 있다고 하겠다(이경희, 1995). 스트레스 대처과정은 개개인이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자신의 행위양식을 활용하여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혜은, 1997). 외상후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외상성 사건이지만,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병하지는 않는다. 외상성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외상성 사건 경험 후의 결과가 달라진다(신화영, 2012). 따라서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만큼이나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학자들에 따라 그 기능과 유형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Pearlin 과 Schooler(1978)은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문제 지향적, 인지적, 정서 완충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이 많을수록 개인의 감정을 구분하였으며,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이 많을수록 개인의 감정을 적절히 발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Moos(1983)은 노력의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방출적 대처로, Brown(1991)는 회피와 비회피적 대처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다(최동철, 2001). Billings와 그의 동료들(1983)은

노력의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방출적 대처로 분류하였고, Brown과 Health(1984)는 회피와 비회피적 대처로, Parkes(1986)는 직접적 대처, 억압적 대처와 일반적 대처로 분류하였다(류진혜 외, 1998). Roth와 Cogen(1986)은 대처행동을 접근과 회피로 유형화하였다. 정보수집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직접 해결하려는 것을 접근으로 유형화하였고, 회피나 무시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직접 해결하려는 것을 회피로 유형화하였다(이재희, 2003). Lazarus(1969)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위협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과정인 방어기제에 의한 대응과정으로 자신의 자아개념과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목적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김정원 외, 2001). 즉, 문제중심적 대처 전략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찾고 이들을 저울질 해보고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포함하며, 정서적 대처에는 회피, 거리두기, 긍정적 해석과 같은 인지적 전략이 포함된다(김혜은, 1999). 이처럼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대처양식 또한 정서중심 대처 전략의 개념에 포함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대처양식은 스트레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하느냐는 관점의 차이일뿐 어떠한 대처양식이 더 적응적이라고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Lazarus와 Folkman (1984)은 한가지 대처가 다른 대처보다 더 좋거나 나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대처가 다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초점이 문제중심이나 정서중심이나의 차이일 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포함하는 대처노력으로 서로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고 했다(최지연, 2000). 여러 연구들에서 실제로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시점에 상관없이 안정적이며 일관된다고 한다(남순현 외, 1998). 대처방식에서 어느 한가지 유형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이 있는가 하면(Pearlin & Schooler, 1974; 김영희 2000), 문양호 외(2006)의 연구처럼 정서 중심대처를 감소시키고 문제중심대처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및 적응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Aldwin &

Revenson(1987)은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가 효과가 있고 정서 중심대처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김효신 외, 2007)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과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일 뿐, 어떠한 대처양식이 효과적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대처양식을 문제중심적·정서중심적·회피 대처방식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예를 들면, 현재 상황보다 나아지기 위해 행동하거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조언을 구한다거나 계획을 세우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방법과 둘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으로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접근 한다기 보다 정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행동, 예를 들면 기도나 명상을 한다거나 믿음이나 종교에서 위안을 얻는 대처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대처방법으로 회피가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대처방법이다.

2) 대처양식의 매개역할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스트레스와 병적 증상 사이에서 관계를 연결해주는 매개변수로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azarus & Folkman(1984)은 대처양식이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Kaplan, Robbins, & Martin(1983)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이라고 말하였다(서문자, 1989). 또한 Peterson(1991)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들로 대처양식과 성격 요소를 주장하였다(Barron, 1996; 이옥정, 2010).

소방관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한 유지현(2006)의 연구를 살펴 보면, PTSD 집단이 비 PTSD 집단에 비해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방식에서는 PTSD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소극적

대처방식에서는 비 PTSD 집단에 더 많이 사용하였고, 하위 척도인 정서중심적 대처 역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기존의 PTSD 증상과 소극적 대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이선미(2001)의 연구도 이옥정(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신화영(2012)의 연구에서는 PTSD 증상 정도에 대해 대처방식의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고, 심한 정도의 PTSD 증상을 보이는 집단에서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지하철 승무원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한 주성아(2009)의 연구에서는 직무 수행중 사상사고를 경험한 지하철 승무원의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 역기능적 대처 중 문제중심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대처방식에 대하여 연구한 안무옥(2007)의 연구가 있다. 안무옥의 연구에서의 대처방식은 회피대처와 접근대처로 나누었는데 회피대처가 외상경험과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Trembly, Hebert, & Piche(1999)의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처양식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정, 2010).

이처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처양식의 역할에 관한 일관된 결과는 없다. 따라서 제주지역 경찰관들의 대처양식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는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4. 선행 연구 고찰

황인희(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외상성 사건을 직·간접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상성 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폭행당한 사람의 목격이었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근무 중에 사체를 목격한 간접 사건이었다. 외상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소진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소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 외상스트레스 순이었고, 특히 외상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과각성이 비인격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상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 문제중심 대처양식, 정서중심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는 의미가 없었다고 연구되었다.

이옥정(2010)의 연구는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있어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의 매개,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로,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스트레스 대처양식 중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와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배점모(2011)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 연구를 통하여,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시키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생활사건이 감소되어야 하며 심리적 복지감의 구성요소인 목적감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자혜(2012)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로, 간접 외상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상 사건 정도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에 관한 일관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귀포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95명, 제주시 지역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202명, 총 297명의 자료를 최종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3월 2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 동·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4곳의 경찰관서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결과 대상 경찰관들이 응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제주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 일부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 직접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제주지방경찰청, 서귀포경찰서의 경우는 경찰서 관계자를 통해 배부,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였고, 318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 불성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297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병가 휴직자 등을 제외한 인원임) 총 1,381(2013. 3월 기준)명 중 21.6%가 설문에 응답한 것이다.

3. 연구도구

1) 외상성 사건 경험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사건은 경찰관이 업무 중에 경험하는 사건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며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말한다. 연구에서 제시되는 외상성 사건 경험이란, 경험한 외상성 사건 개수와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정신적 충격 2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다.

외상성 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신성원(2007)이 번안하고 한국 경찰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Thomas-Riddle(1999)의 직무 사건목록(Lisd of Work Event)을 사용하였으며 원래의 목록은 33개 문항이었으나, 신성원(2007)이 번안하여 수정한 목록은 2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를 이옥정(2010)이 Thomas-Riddle(1999)의 직무사건 목록을 재비교하여 사건 목록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한국 경찰 실정에 맞지 않는 하나의 문항을 제외한 후 실정에 맞는 문항을 하나 추가하여 수정한 목록의 문항 수는 23개로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차적 외상성 사건 9문항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성 사건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된 23개의 사건 중 조사대상자가 업무 중 경험하였다고 표시한 외상성 사건들의 개수를 합하여 외상성 사건 개수를 측정하였고, 경험한 외상성 사건들에 대해 각각 기록한 정신적 충격들을 모두 합한 후 경험한 외상성 사건 개수로 나누어서 외상성 사건 충격을 측정하였다.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정신적·신체적 증상들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사건 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사용하였다. Horowitz(1979)에 의해 개발된 사건 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대한 대처에 초점이 맞추어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Weiss와 Marmar(1997)에 의해 과각성 하위척도를 포함한 사건 충격척도 개정판(IES-R,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을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헌정 외(2005)가 IES-R을 번안하고 수정하여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개발하였다.

IES-R-K는 5점 리커트 척도로 '0=전혀 없다'에서부터 '4=많이 있다'까지 기입하게 되어있으며 지난 일주일간 경험한 증상에 대하여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옥정(2010)의 연구에 의하면 DSM-IV에서 제시한 외상24/25점이 완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분하는 절단점이고, 17/18점이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상인을 구분하는 절단점이다(은헌정 외, 2005).

은헌정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IES-R은 CAPS, BDI, STAI- I, II, MPI-PTSD 척도와 높은 준거 타당도 및 공준 타당도를 보이며, 이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이옥정(2010)의 연구에서는 회피, 과각성, 침습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각각 .90, .88,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의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 문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과각성	4,10,15,18,19,21	6	.819
회피	5,7,8,11,12,13,17,22	8	.799
침습	1,2,3,6,9,14,16,20	8	.857

3) 스트레스 대처양식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스트레스적 상황을 다스리기 위한 개인의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하며,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경찰관들의 일반적인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성아(2009)가 번안한 Carver(1997)의 The Brief COPE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개 항목, 28문항으로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역기능적 대처의 3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자가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1=전혀 사용안함'에서부터 '4=많이 사용'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 항목의 문항 점수들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노력을 많이 하고, 해당 하위 항목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성아(2009)의 연구에 따르면, The Brief COPE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1로 나타났으며, 하위항목인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역기능적 대처의 신뢰도는 각각 .849, .816, .82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의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스트레스 대처양식(The Brief COPE) 문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문제중심적 대처	2,4,12,15,16,17	6	.884	
정서중심적 대처	1,3,7,10,13,14,23,26,27,28	10	.861	.941
역기능적 대처	5,6,8,9,11,18,19,20,21,22,24,25	12	.879	

4. 자료처리

자료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 불성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297부를 SPSS(Statistical Paca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오류 검토 작업 후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상성 사건 경험, 스트레스 대처양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이용한 신뢰도검증(reliability test)을 통해 연구에서 사용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인 외상성 사건 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매개로 한 영향력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와 Kenny는 어떤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를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경로 A), 두 번째 단계는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경로 B), 세 번째 단계는 예측 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경로 C), 네 번째 단계는 경로 C에 매개변인을 추가했을 때 경로(C') 독립변인의 효과(β 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때, 예측 변인의 효과(β 값)가 유의하지 않으면 즉, 0과 다르지 않으면 완전매개라고 하고, 예측 변인의 효과(β 값)가 유의하면 즉, 0보마 크다면 부분매개라고 한다(서영석, 2010; Baron, R. M. & kenny, D. A,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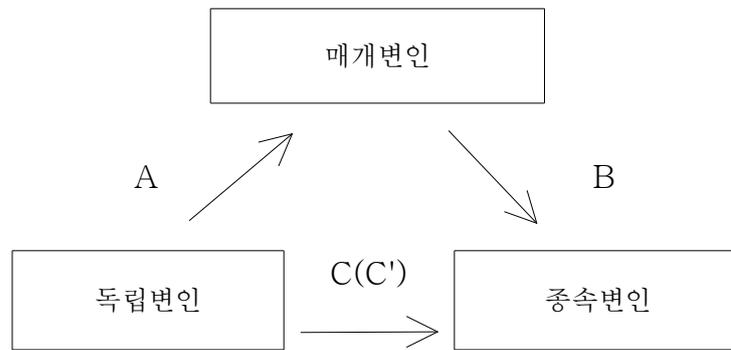


그림 1.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다섯째,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Sobel 검증을 통해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제주지역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계급, 근무부서, 근무년수, 외근년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역	서귀포시	95	32
	제주시	202	68
성별	남자	256	86.2
	여자	41	13.8
연령	20~29세	25	8.4
	30~39세	114	38.4
	40~49세	133	44.8
	50~59세	25	8.4
결혼 상태	미혼	34	11.4
	기혼	260	87.5
	이혼	2	.7
	별거·사별	1	.3
학력	고등학교 졸업	65	21.9
	전문대 졸업(중퇴·재학)	65	21.9
	대학교 졸업(중퇴·재학)	162	54.5
	대학원 졸업(중퇴·재학)	4	1.3
	무응답	1	.3

계급	순경	33	11.1
	경장	61	20.5
	경사	137	46.1
	경위이상	65	21.9
	무응답	1	.3
입직경로	순경공채	273	91.9
	특채	16	5.4
	간부후보	5	1.7
	경찰대학	3	1.0
근무부서	지구대	82	27.6
	형사	65	21.9
	수사	37	12.5
	생활안전	26	8.8
	교통	31	10.4
	기타	56	18.9
근무년수	5년 미만	31	10.4
	5~10년 미만	79	26.6
	10~20년 미만	106	35.7
	20~30년 미만	74	24.9
	30년 이상	6	2.0
	무응답	1	.3
외근 근무년수	5년 미만	69	23.2
	5~10년 미만	81	27.3
	10~20년 미만	104	35.0
	20~30년 미만	40	13.5
	30년 이상	2	.7
	무응답	1	.3
건강상태	매우건강	32	10.8
	대체로 건강	124	41.8
	보통	106	35.7
	약간의 질병 보유	27	9.1
	심각한 질병 보유	8	2.7

전체 조사 대상자 297명 중 서귀포 지역 경찰관 95명(32%), 제주시 지역 경찰관 202명(68%)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56명(86.2%), 여성은 41명(13.8%)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25명(8.4%), 30대가 114명(38.4%), 40대가 133명(44.8%), 50대가 25명(8.4%)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79.2%가 30대와 40대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34명(11.4%), 기혼이 260명(87.5%), 이혼이 2명(.7%), 사별이 1명(.3%)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기혼임을 알 수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5명(21.9%), 전문대 졸업이 65명(21.9%), 대학교 졸업이 162명(54.5%), 대학원 졸업이 4명(1.3%)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77.7%가 전문대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계급을 살펴보면 순경이 33명(11.1%), 경장이 61명(20.5%), 경사가 137명(46.1%), 경위 이상이 65명(21.9%)으로 나타났다. 조사자의 대다수가 77.7%가 경사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경찰 임용 과정을 살펴보면 순경공채가 273명(91.9%)이고, 특별채용은 16명(16%), 간부후보 출신은 5명(1.7%), 경찰대학 출신은 3명(1.0%)이었다. 대다수가 순경 공채로 경찰조직에 입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근무부서는 지구대가 82명(27.6%), 형사(강력, 폭력, 과학수사)가 65명(21.9%), 수사가 37명(12.5%), 생활안전(여성청소년)이 26명(8.8%), 교통(사고조사)이 31명(10.4%), 기타로는 정보, 보안, 경무 등으로 56명(18.9%)으로 나타났다.

근무 년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5년 미만이 31명(10.4%), 5~10년 미만이 79명(26.6%), 10~20년 미만이 106명(35.7%), 20~30년 미만이 74명(24.9%), 30년 이상이 6명(2.0%)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외근 근무년수를 살펴보면, 5년 미만이 59명(23.2%), 5~10년 미만이 81명(27.3%), 10~20년 미만이 104명(35.0%), 20~30년 미만이 40명(13.5%), 30년 이상이 2명(.7%)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건강이 32명(10.8%), 대체로 건강이 124명(41.8%), 보통이 106명(35.7%), 약간의 질병 보유가 27명(9.1%), 심각한 질병 보유가 8명(2.7%)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인 88.3%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다.

2. 주요 변수의 특성

1) 외상성 사건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표 5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가 재직기간 중 경험한 외상성 사건 수의 평균은 10이며, 0부터 23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총 23개의 사건 목록 중 경찰관이 근무 중에 10개 종류의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경찰관들은 다양한 종류의 외상성 사건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사건 충격의 평균은 4.48이며, 0부터 9.29까지 분포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해 최대 10점의 충격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각 사건에 대해 평균적으로 4.48의 충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 외상성 사건에 대한 충격 정도는 보통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5. 외상성 사건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min~max)
경험한 사건의 수	10	5.12	0 ~ 23
경험한 사건의 충격 (사건의충격의합/사건수)	4.48	2.18	0 ~ 9.29

표 6은 경찰관이 직무상 경험할 수 있는 외상성 사건 목록과 함께, 조사 대상자들 중 각각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빈도와 그 사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관이 직무상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성 사건은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으로 274명(92.3%)이 경험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건은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를 목격하는 것으로 267명(89.9%)이

경험하였다. 세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건은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한 것으로 200명(67.3%)이 경험하였다. 경찰관이 직무상 경험하는 사건 중 가장 정신적 충격이 큰 외상성 사건은 근무 중 사체를 목격한 것이었으며 충격의 평균은 4.38이며 두 번째로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은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보는 것으로 충격의 평균이 3.32,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은 근무 중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경험으로 충격의 평균이 3.05로 나타났다.

표 6. 경찰관 직무상 경험할 수 있는 외상성 사건 목록

직무관련 사건	경험한 사건		정신적 충격의 평균
	빈도	비율	
일차 외상사건			
총기나 흉기 등에 의한 치열한 물리적 충돌 경험	142	47.8	2.54
근무 중 타인에게 충격 및 충격을 겨냥	47	15.8	.61
근무 중 타인에게 충격을 제외한 강한 물리적 행사	159	53.5	2.35
근무 중 흉기에 의한 부상 경험	36	12.1	.53
근무 중 흉기에 의하지 않는 심각한 부상 경험	42	14.1	.80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경험	88	29.6	1.35
고속의 차량 추격전 경험	163	54.9	2.62
위험한 영장의 집행	67	22.6	1.17
근무중 심각한 차량사고 경험	63	21.2	1.23
이차 외상사건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사망	63	21.2	1.47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부상	139	46.8	2.56
동료 경찰관의 자살	94	31.6	2.08
동료가 아닌 경찰관의 자살	163	54.9	2.65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 사건)의 목격	267	89.9	4.38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 목격	165	55.9	2.81
폭행당한 사람 목격	274	92.3	3.05
강간당한 사람 목격	187	63	2.65
납치당한 사람 목격	78	26.3	1.12.
성폭행 당한 어린이 목격	116	39.1	2.19
학대받거나 방임된 어린이 목격	154	51.9	2.64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 목격	200	67.3	3.32
자연재해(수해, 산불 등)에 대한 대응	154	51.9	2.01
인재(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 등)에 대한 반응	108	36.4	1.62

2)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기술통계

표 7에서 하위항목별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을 보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합/문항수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으로 합/문항수가 2, 그리고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합/문항수가 1.67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1부터 4까지의 4점 척도 중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각 문항별 평균 점수가 2.19라는 것은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보통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이 2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그보다 조금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의 하위 항목은 구성하는 문항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균이 아닌 합/문항수로 세 가지 대처양식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기술통계

변수	합	합/문항수	표준편차	범위 (min~max)
문제중심적 대처(6문항)	13.1	2.19	4.19	6~24
정서중심적 대처(10문항)	20	2	5.41	10~37
역기능적 대처(12문항)	20	1.67	6.07	12~40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술통계

표 8에서 조사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살펴보면, 합이 5.69로 PTSD 진단기준인 25점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항목별 수준을 살펴보면 과거 장면으로의 회상, 꿈을 꾸는 등의 침습 증상이 합/문항수가 0.29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로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피하는 회피 증상이 0.28로, 그리고 과도한 경계, 과민성의 과각성 증상이 0.19로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술통계

변수	합	합/문항수	표준편차	범위 (min~max)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22)	5.69	.26	7.68	0~49
과각성(6문항)	1.15	.19	2.18	0~15
하위항목 회피(8문항)	2.29	.29	3.19	0~20
침습(8문항)	2.25	.28	3.84	0~20

전체 조사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균은 5.69로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나 표 9를 보면, PTSD 절단점인 24/25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9명이 PTSD 진단 집단에 속한다. 또한 19명(6.4%)가 부분 PTSD에 분류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28명(9.4%)가 부분 PTSD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경찰관 PTSD 선행 연구인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경찰관 중 38.8%가 PTSD 진단 집단에 속하였으며, 황인희(2009) 연구에서는 12.73%가 PTSD 진단 집단에, 이옥정(2010)의 연구에서는 40%가 PTSD 진단집단에 속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적은 숫자의 조사대상자가 PTSD 진단에 속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근무 환경 차이, 즉 근무부서, 근무지, 근무형태 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표 9.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집단의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완전 PTSD (25점 이상)	9	3.0
부분 PTSD (18~24점)	19	6.4
정상 (17점 이하)	269	90.6
합계	297	100

완전 PTSD에 속하는 경찰관들 9명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사건과 그 이유를 자세히 묻는 문항에 대하여 3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완전 PTSD 집단의 충격적인 사건

완전 PTSD 사례	근무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사건과 그 이유
사례 1	1994. 5월경 주취자를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가는 도중 운전중인 자 신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진 사건, 거울을 볼때 마다 그때의 사건이 계속 떠오르고 화가 남.
사례 2	1992. 9월경 도로변 에서 교통단속 근무중에 동료직원이 행패자가 휘두르는 칼에 왼쪽 어깨부위를 피습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함.
사례 3	살인사건 현장 목격, 사체가 끔찍하게 죽어 있는 현장, 행패자에게 피습 당하는 현장을 너무 많이 겪어 기억할 수조차 없음.

사례 1을 보면 본인 자신이 현장에서 피습을 당한 경우이며, 사례 2는 동료직원이 피습을 당한 경우이다. 사례 3의 경우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 기억조차 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사례 1의 경우를 살펴보면, 9년 전에 발생하였던 사건이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폭행당하였던 사건이 계속 떠오르고 화가 난다고 응답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외상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분노 감정이 생긴다고 조사되었다.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상관분석을 통하여 개별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종속변수인 외상후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는 사건개수, 사건충격,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역기능적 대처양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역기능적 대처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외상후 스트레스는 문제중심적 대처양식과 .352, 정서중심적 대처양식과 .391로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60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인	1. 사건개수	2. 사건충격	3. 문제중심	4. 정서중심	5. 역기능적	6. PTSD
1	1.000					
2	.116*	1.000				
3	.258**	.229**	1.000			
4	.297**	.297**	.846**	1.000		
5	.349**	.288**	.624**	.688**	1.000	
6	.334**	.324**	.352**	.391**	.603**	1.000

*p<.05 **p<.01, ***p<.001

4. 외상성 사건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경찰관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상성 사건 경험의 하위 요인인 경험한 외상성 사건수와 경험한 외상성 사건 충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p	공차한계
	상수	1.158	-	-2.905	.004*	
PTSD 증상	경험한 외상성 사건수	.080	.296	5.636	.000***	.986
	경험한 외상성 사건 충격	.186	.290	5.482	.000***	.986
R=.439, R ² =.193 , 수정된 R ² =.187 F=34.975, p=.000, Durbin-Watson=2.044						

*p<.05 **p<.01, ***p<.001

표 12는 경험한 외상성 사건수와 경험한 외상성 사건 충격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것으로 F값은 34.975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분석의 설명력은 18.7%로,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18.7%를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분석 결과, 경험한 외상성 사건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 ($\beta=.296$)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험한 외상성 사건 수가 많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험한 외상성 사건 충격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 ($\beta=.290$)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험한 외상성 사건 충격이 클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외상성 사건 경험수($\beta=.296$)가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 계수($\beta=.290$)보다 크므로, 외상성 사건수가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상성 사건 경험의 양적 측면이 질적 측면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가설검증

(1)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먼저, [연구가설 1-1]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단계 (경로A)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211	.046	.258	4.580***
		F= 20.974*** R ² (adj-R ²)= .66 (.63)				
2단계 (경로B)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644	.100	.352	6.455***
		F= 41.665*** R ² (adj-R ²)= .124 (.121)				
3단계 (경로C)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501	.082	.334	6.086***
		F= 37.044*** R ² (adj-R ²)= .112 (.109)				
4단계 (경로C)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391	.082	.261	4.790***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		.521	.100	.285	5.231***
		F= 33.856*** R ² (adj-R ²)= .187 (.182)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경험 수는 유의하게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β =.258, p <.001),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에 대해 66%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66).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352, p <.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2.1% 설명하였다($R^2=.121$). 외상성 사건 경험수는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beta=.334$, $p<.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9% 설명하였다($R^2=.109$). 이로써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경험수의 설명력(R^2)은 18.2%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7%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7%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33.856$, $p<.001$).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285$, $p<.001$), 외상성 사건 경험 수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261$, $p<.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경험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매개변인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_a : a의 표준오차, S_b :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211, b=.644, $s_a=.046$, $s_b=.100$)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beta=.334 \rightarrow .261$)가 유의하였다(Sobel's T: $z=3.74$, $p<.05$).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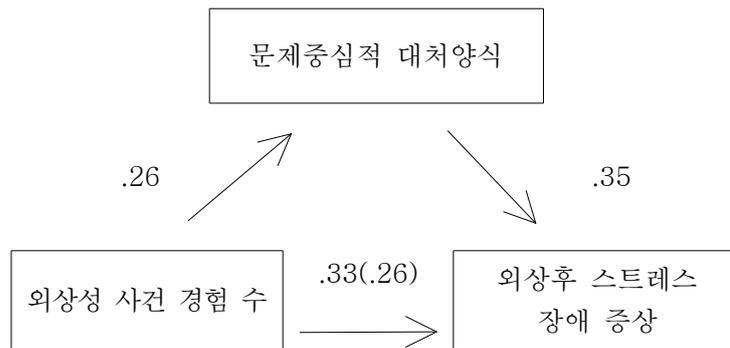


그림 2. 외상성 사건 경험 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연구가설 1-2]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단계 (경로 A)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314	.059	.297	5.347***
	F= 28.586*** R ² (adj-R ²)= .088 (.085)					
2단계 (경로 B)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554	.076	.391	7.286***
	F= 53.091*** R ² (adj-R ²)= .0153 (.150)					
3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501	.082	.334	6.086***
	F= 37.044 R ² (adj-R ²)= .112 (.109)					
4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358	.082	.239	4.388***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		.453	.077	.319	5.865***
	F= 37.817 R ² (adj-R ²)= .205 (.199)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경험 수는 유의하게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beta=.297$, $p<.001$),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에 대해 8.5%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085$).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beta=.391$, $p<.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5% 설명하였다($R^2=.150$). 외상성 사건 경험수는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beta=.334$, $p<.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9% 설명하였다($R^2=.109$).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경험수의 설명력(R^2)은 19.9%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9%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9%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37.817$, $p<.001$). 또한 이 과정에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319$, $p<.001$), 외상성 사건 경험 수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239$, $p<.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경험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매개변인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a: a의 표준오차, Sb: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314, b=.554, $s_a=.059$, $s_b=.076$) 외상성 사건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beta=.334 \rightarrow .239$)가 유의하였다(Sobel's T: $z=4.30$, $p<.05$).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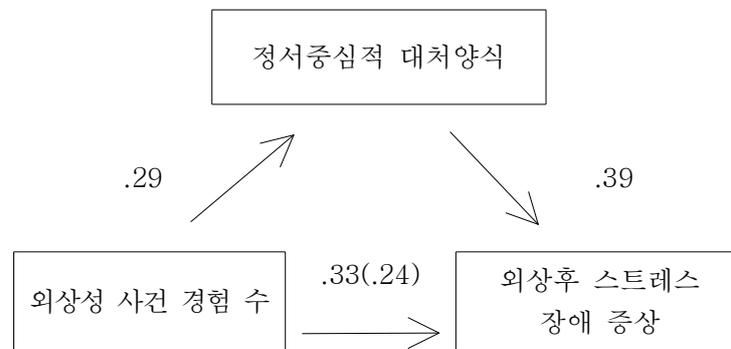


그림 3. 외상성 사건 경험 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연구가설 1-3]인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단계 (경로 A)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역기능적 대처양식	.414	.065	.349	6.406***
F= 41.040*** R ² (adj-R ²)= .122 (.119)						
2단계 (경로 B)	역기능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763	.059	.603	12.979***
F= 168.443*** R ² (adj-R ²)= .363 (.361)						
3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501	.082	.334	6.086***
F= 37.044 R ² (adj-R ²)= .112 (.109)						
4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211	.073	.140	2.868***
	역기능적 대처양식 →		.700	.062	.554	11.306***
F= 90.397*** R ² (adj-R ²)= .381 (.377)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경험 수는 유의하게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β =.349, p <.001), 역기능적 대처양식에 대해 11.9%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119).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603, p <.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36.1% 설명하였다(R^2 =.361). 외상성 사건 경험수는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β =.334, p <.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9% 설명하였다(R^2 =.109).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경험수의 설명력(R^2)은 37.7%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1.6%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1.6%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90.397, p<.001$). 또한 이 과정에서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554, p<.001$), 외상성 사건 경험 수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140, p<.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경험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_a : a의 표준오차, S_b :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414, b=.763, s_a=.065, s_b=.059$)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beta=.334 \rightarrow .140$)가 유의하였다(Sobel's T: $z=5.71, p<.05$).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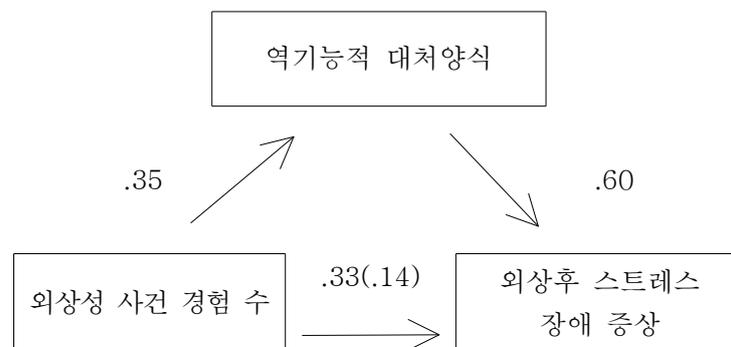


그림 4. 외상성 사건 경험 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연구가설 1-4]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단계 (경로 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442	.109	.229	4.041***
	F= 16.329*** R ² (adj-R ²)= .053 (.049)					
2단계 (경로 B)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644	.100	.352	6.455***
	F= 34.568*** R ² (adj-R ²)= .105 (.102)					
3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1.143	.194	.324	5.879***
	F= 34.568*** R ² (adj-R ²)=.105 (.102)					
4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906	.191	.257	4.750***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		.536	.099	.293	5.414***
	F= 33.604*** R ² (adj-R ²)= .187 (.181)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는 유의하게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 (경로 A: β =.229, p <.001),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에 대해 4.9%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049).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352, p <.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2.1% 설명하였다(R^2 =.121).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는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β =.324, p <.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2% 설명하였다(R^2 =.102).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의 설명력(R^2)은 18.7%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7.9%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7.9%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33.604, p<.001$).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257, p<.001$),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293, p<.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매개변인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_a : a의 표준오차, S_b :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314, b=.554, $s_a=.059, s_b=.076$)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beta=.324 \rightarrow .257$)가 유의하였다(Sobel's T: $z=3.43, p<.05$). 따라서 그림 5과 같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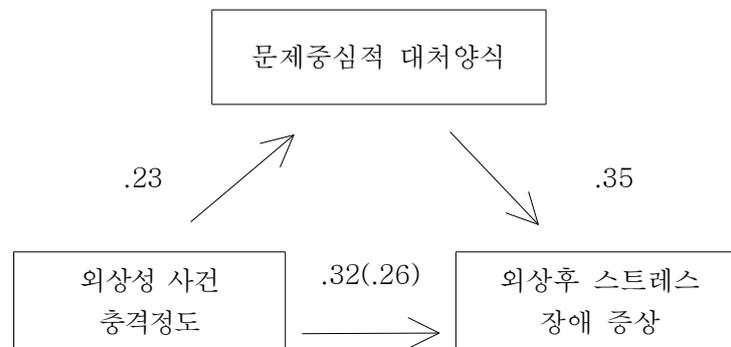


그림 5.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연구가설 1-5]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단계 (경로 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737	.138	.297	5.326***
F= 28.635 R ² (adj-R ²)= .088 (.085)						
2단계 (경로 B)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554	.076	.391	7.286***
F= 53.091*** R ² (adj-R ²)= .153 (.150)						
3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1.143	.194	.324	5.879***
F= 34.568*** R ² (adj-R ²)=.105 (.102)						
4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456	.078	.321	5.873***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		.807	.193	.229	4.184***
F= 36.500*** R ² (adj-R ²)= .199 (.194)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는 유의하게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beta=.297$, $p<.001$),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에 대해 8.5%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085$).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beta=.391$, $p<.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2.1% 설명하였다($R^2=.121$).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는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beta=.324$, $p<.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2% 설명하였다($R^2=.102$).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의 설명력(R^2)은 19.4%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9.2%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7.9%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36.500, p<.001$). 또한 이 과정에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229, p<.001$),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321, p<.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매개변인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_a : a의 표준오차, S_b :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737, b=.554, s_a=.138, s_b=.076$)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beta=.324 \rightarrow .321$)가 유의하였다(Sobel's T: $z=4.31, p<.05$).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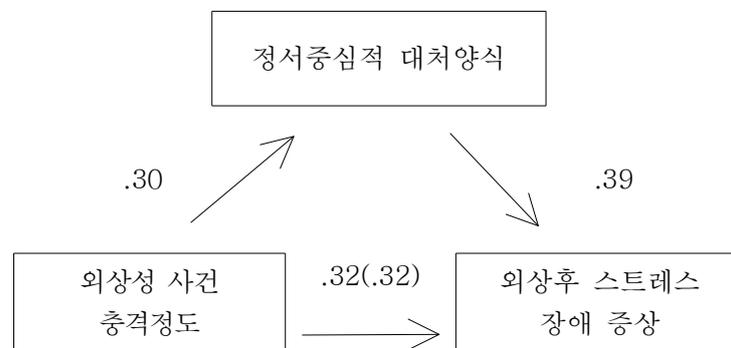


그림 6.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연구가설 1-6]인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단계 (경로 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역기능적 대처양식	.802	.156	.288	5.150***
	F= 26.518*** R ² (adj-R ²)= .083 (.080)					
2단계 (경로 B)	역기능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763	.059	.603	12.979***
	F= 168.443*** R ² (adj-R ²)= .363 (.361)					
3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1.143	.194	.324	5.879***
	F= 34.568*** R ² (adj-R ²)=.105 (.102)					
4단계 (경로 C)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581	.168	.165	3.452**
	역기능적 대처양식 →		.702	.060	.555	11.623***
	F= 92.713*** R ² (adj-R ²)= .388 (.383)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는 유의하게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β =.288, p <.001), 역기능적 대처양식에 대해 8.0%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080).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603, p <.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36.1% 설명하였다(R^2 =.361).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는 유의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β =.324, p <.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2% 설명하였다(R^2 =.102).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의 설명력(R^2)은 38.3%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28.1%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28.1%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92.713$, $p<.001$). 또한 이 과정에서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555$, $p<.001$),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165$, $p<.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_a : a의 표준오차, S_b :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802$, $b=.763$, $s_a=.156$, $s_b=.059$)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beta=.324 \rightarrow .165$)가 유의하였다 (Sobel's T: $z=4.78$, $p<.05$).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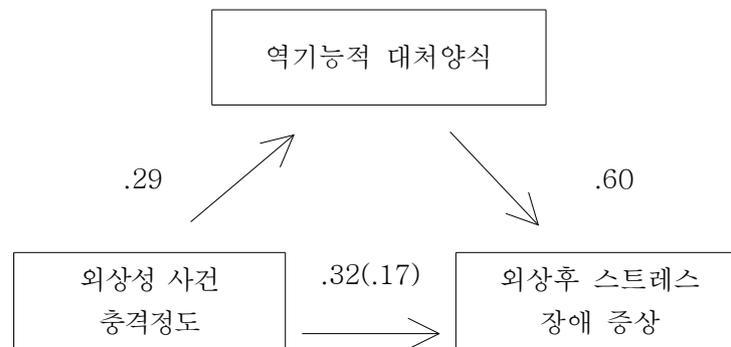


그림 7.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모형

이처럼 외상성 사건 경험(외상성 사건 경험 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문제중심, 정서중심,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부분 매개 효과는 모두 검증되었으며, 표 19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별 연구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9. 연구 결과

가설	경로방향	채택 여부
1-1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채택
1-2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채택
1-3	외상성 사건 경험 수 → 역기능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채택
1-4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 →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채택
1-5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 →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채택
1-6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 → 역기능적 대처양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채택

V. 논 의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 경찰관들의 평균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은 정상범주에 속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정도를 보였다. 신성원(2007), 황인희(2009)의 연구 및 이옥정(2010)의 선행연구에서는 비교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정도가 높게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옥정(2010)의 연구에서는 PTSD 집단이 40%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를 외근 근무 자로 한정하여 설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경찰관이 정상범주에 속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가능한 완전 PTSD 집단은 9명(3.0%)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상범주에 속하는 대다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는 소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찰관을 엄밀히 선별하여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상담 등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경찰관이 직무상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성 사건은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으로 274명(92.3%) 경험하였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근무 중 사체를 목격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피습, 부상당하는 사건 보다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사건에 의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한다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쉽게 간과 할 수 있는 간접 외상 사건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외상성 사건 경험의 하위요인인 외상성 사건 개수와 외상성 사건 충격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 충격 정도가 클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종류의 외상성 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지, 어떠한 사건이 충격정도가 심한지 분류하여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이고 의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쇼크, 지남력장애, 분리로부터의 공포, 편집증, 공격성에 이르는 외상 주변(peritraumatic) 증상들은 외상성 사건 동안이나 직후에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이처럼 외상주변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 즉시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실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근무년수와 외근근무년수가 높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 수록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잠재적인 외상성 경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은 업무 자체가 항시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며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발화(kindling)에 비유될 수 있는데 Allen 외(2005)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외상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증가하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의식 밖에서 점차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화는 수년 동안 상대적으로 잘 기능을 해 오던 사람들이 스트레스적인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사건 당시 충격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이나 의식 밖에 있던 잠재적인 외상 사건들이 외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보면 기억속에서 활성화되어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적된 외상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외상에 대처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다른 부가적인 외상에 대한 노출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줄이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는 바람직한 대처법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경찰관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역기능적 대처 양식 모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논문에 의하면 회피 양식인 역기능적 대처 양식만이 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처양식 전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대처양식을 통하여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해줌과 동시에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제시함으로써 경찰관 스스로가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시대상은 제주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해준 일부에 대해서만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므로 전체 경찰관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정확한 상태 확인 및 일반화를 위해서는 경찰청 단위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감자료나 실태조사를 위해서 경찰청 단위에서 설문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오로지 경찰관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까지 연결이 된다면 보다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경찰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과 특성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뒤에 설문의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면 보다 더 경찰관의 내면에 세계에 대한 진솔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는 경찰관이 근무중에 경험하는 사건을 총 23개로 제작되어 있다. 현장에서 접하는 충격적이 사건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현장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 목록을 추가하여 제작하여 보다 정확한 외상성 사건 경험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대해 실질적 관찰과 사례중심으로 분석하고, 심층 면담이나 상담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같이 병행 된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권석만(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순진 · 김환(2000). 「충격적 경험의 휴유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상심리학 시리즈 7)」. 서울: 학지사.
- 송지준(2011).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이경희(1996). 「청소년의 문제 그 실상과 대책」. 서울: 삼성출판사.
- 최송식(201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기 고양: 공동체.
- Saxe. Glenn N. & Heidi Ellis, B, & Kaplow, Julie B. 공저(2007). 「Collaborative Treatment of Traumatized Children and Teens: The Trauma Systems Therapy Approach」. 김동일 역(2011). 「아동·청소년 위기상담: 트라우마 체계치료」. 서울: 학지사.
- Jon G. Allen · Ph. D. (2005). 「Coping with Trauma」. 권정혜 · 김정범 · 조용래 · 최혜경 · 최윤경 · 권호인 공역. (2010). 「트라우마의 치유」. 서울: 학지사.
- Herman, Judith(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최현정 역(2007). 「트라우마」. 서울: 플래닛.

국외문헌

- Baron, R.,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6), 1173-1182.
- Carver, C., Scheier, M., & Weintraub, J.(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Marmar, C., McCaslin, S., Metzler, T., Best, S., Weiss, D., Fagan, J., et al(2006).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in Police and Other first Responder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Pstterson, G(2003). *Examining the effects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on work and life stress among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연구논문

김영희(2000). 성격유형과유머감각및스트레스대처방식과의관계. 한국가족복지학.

김자혜(2011)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 외(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성격과의 관계.

김종길(2012).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가 경찰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영(2013). 외상을 경험한 새터민 아동의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경(2012). 경찰관의 외상사건 경험이 PTSD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2012). 침습적 외상 기억이 경험 회피와 해리를 매개로 외상 증상 및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령(2009).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담적 접근을 위한 방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찬형(200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한내과학회지.

김혜은(1999).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심리적 안녕감. 학술지논문.

김효신·유숙자·양수(2007).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의 흡연과 우울 불안스트레스 대처양방식. 정신간호학회지.

권용철(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

- 적 특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보라(2008).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염태호(199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장의 성격요인과 대처방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류진혜 외(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논문
- 문양호·김완일(2006).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분석 및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 배점모(2011).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문자(1989). 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적응상태와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은정(2008). 성인 남성들의 흡연 상태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강인성 및 낙관성 비교.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원(2010). 경찰관의 폭력피해 경험이 탈진감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 신지은(2011).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표현예술치료가 산재환자의 PTSD 증상 감소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화영(2012).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PTSD 증상의 관계 : D 유형 성격과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무옥(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정서조절,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이경화(2011). 강력사건에 노출된 경찰관들의 PTSD 증상에 관한 연구: 형사과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옥정(2010)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양식의 매개·조절 효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규(2003). 초등학생 반장의 반장역할 개념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학생생활연구.
- 유지현(2006).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정서상태, 대처방식 및 사회적지지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희(2010). 귀인양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유진(2010). 경작공무원의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성아(2009). 직무수행 중 사상사고를 경험한 지하철 승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연(2000).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희(2009).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정보마당·경찰통계. (2013). 경찰관 순직, 공상 발생 현황. Retrieved from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6>
- 경찰관 절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5년간 72명 자살. (2012. 11. 18). News1. Retrieved from <http://news1.kr/articles/897853>
- '우울증세' 경찰관 잇단 자살, 예방대책 '절실'. (2009. 12. 27).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hankooki.com/1page.society/200911/h20091111224635_1980.htm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Daum 건강지식). Retrieved from http://k.daum.net/na/item/view.html?svcorgid=_SDB&sobid=h_dise&itemid=H003102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Naver 건강지식). Retrieved from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selectedTab=detail&diseaseSymptomTypeCode=AA&diseaseSymptomCode=AA000352&cpId=ja2#c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Management Format on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n Traumatic Case Experience of Police Officers

Yang Gyoung Mi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Counseling Psychology

Supervised by Prof.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 of stress management on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with traumatic case experience. For this, theory on trauma, traumatic case and post trauma stress management format was studied and following research issues and hypothesis were set up.

Issue 1. Stress management format will play a role as mediation for the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for the traumatic case experience of police officers.

Based on issue above selected hypothesis are as follows.

Hypothesis 1-1. For the influence over post trauma stress disorder symptom due to number of traumatic case of police officers, problem focused management form will play a role of mediation.

Hypothesis 1-2. For the influence over post trauma stress disorder symptom due to number of traumatic case of police officers, emotional focused management form will play a role of mediation.

Hypothesis 1-3. For the influence over post trauma stress disorder symptom

due to number of traumatic case of police officers, dysfunctional management format will play a role of mediation.

Hypothesis 1-4. For the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due to degree of impact on traumatic case of police officer, problem focused management format will play a role of mediation.

Hypothesis 1-5. For the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due to degree of impact on traumatic case of police officer, emotional focused management format will play a role of mediation.

Hypothesis 1-6. For the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due to degree of impact on traumatic case of police officer, dysfunctional management format will play a role of mediation.

In order to verify research issue and hypothesis, police officers from 4 police stations in Jeju area were selected as subjects and collected data through self report type survey and used and analyzed cases on total of 297 police officers.

The measurement tools used for the research was List of Work Events by Thomas-Riddle(1999) which was duty case list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Shin Sung Won (2007) to suit the police circumstances and rearranged by Lee Ok Jung to be more suited for Korean police officers' state by adjusting a question. As for the sub category of measurement tool are differentiated by the sides of quantity and quality on number of traumatic cases and impact of traumatic case experienced with total of 23 questions.

To measur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Korean version of case impact scale revised version (IES-R-K) was used. Impact of Event Scale, IES was developed by Horowitz in 1979 and revised version IES-R was developed by Weiss and Marmar in 1997 and in Korea, Eun Hun Jung and others (2005) translated and adjusted. The measurement tool includes sub factor for hyperarousal, avoid and invasive otherwise known as primary symptom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omposed with total of 22 questions.

For stress management format, Carver's The Brief Cope scale (1997) was used

which was translated by Ju Sung Ah(2009). The measurement tool includes sub-factors such as problem focused management format, emotional focused management format and dysfunctional management format and has total of 28 questions.

Data processing analysis of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SPSS for Windows 18.0 program and statistically meaningful level was set at .05 and to verify research hypothesis 1,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by going through Baron & Kenny's regression analysis in 4 phases and Sobel Test was done to verify significance level on mediation effect.

Following are the result summarization by hypothesis which was set by the research.

First, for problem-focused management format, number of traumatic case experience played a role of mediation for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econd, for emotional-focused management format, number of traumatic case experience played a role of mediation for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hird, for dysfunctional management format, number of traumatic case experience played a role of mediation for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Fourth, for problem-focused management format, level of impact on traumatic case played a role of mediation for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Fifth, for emotional-focused management format, level of impact on traumatic case played a role of mediation for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ixth, for dysfunctional management format, level of impact on traumatic case played a role of mediation for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research examined mediation effect of stress management format for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after traumatic case experience of police officers in Jeju region. Through the research by confirming the manifestation route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after traumatic case experience, assisted in setting up of appropriat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tervention program and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ultimately help police officers to break free from post traumatic stress and establish positive and dynamic work environment.

부 록

부록 1. 인구사회학적 질문지	66
부록 2. 외상성 사건 경험 질문지	67
부록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질문지	68
부록 4. 스트레스 대처양식 질문지	69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제주 지역 경찰관의 1\)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경찰관의 외상후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설문지는 정답이 없으므로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설문 문항에 대하여 평소 귀하의 생각에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본 연구가 마무리되는 [2013년 8월 31일](#)에 폐기처리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경찰관 외상후스트레스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 그 결과(연구보고서)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_____)

2013 년 3월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 정 환

연구자: 양경미(010-8662-3581, sailormoon7942@hanmail.net)

1) 충격적인 사건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이후 받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
예시) ① 살인사건 출동 이후 현장이 자꾸 떠오르거나 꿈에 나옴 ② 현장에서 폭행, 상해를 당한 이후

1.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별거 ⑤ 이혼 ⑥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각 과정은 중퇴 및 재학을 포함함)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5.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6. 귀하의 입직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순경 공채 ② 순경~경사 특채 ③ 간부후보생 ④ 경찰대학 ⑤ 고시특채
⑥ 기타()
7. 귀하의 소속 경찰서는 몇 급서입니까?
① 1급서 ② 2급서 ③ 3급서 ④ 기타()
8. 귀하의 현 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① 지구대 ② 형사 ③ 수사 ④ 생활안전 ⑤ 교통 ⑥ 기타()
9. 귀하의 근무년수는 몇 년입니까? ()년
- 9-1 전체 근무년수 중 외근 부서에서 근무한 년수는 총 몇 년입니까? ()년
(여기서 외근 부서란, 지구대, 파출소, 형·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사고조사를 의미함)
10. 귀하가 생각하시는 자신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건강 ② 대체로 건강 ③ 보통 ④ 약간의 질병 보유
⑤ 심각한 질병 보유 (월 1~2회 이상의 정기적 치료요망)

출동시 두렵거나 소극적이게 되거나, 그 현장에 다시 가는 것이 어려움. ③ 동료직원이 현장에서 다친 것을 목격한 이후 출동현장에서 쉽게 놀라거나 주의 집중이 어려움 ④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 목격이후 차를 타면 쉽게 놀라거나 주의집중이 어려움

II. 다음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입니다.
 귀하께서 경찰관 재직 중 경험한 사건에 대해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은 어느 정도였는지 0~10 사이의 숫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0=전혀 충격 없음, 5=중간 정도의 충격, 10=가장 심한 정도의 충격) .

번호	직무관련 사건	경험한 사건 (√표시)	정신적 충격 (0~10)
예시	(타인이 나에게 흉기, 총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	7
1	(타인이 나에게 흉기, 총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2	근무 중 타인에게 충격 및 총기를 겨누었다.		
3	근무 중 타인에게 (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4	근무 중 흉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5	근무중(흉기에 의하지 않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6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		
7	고속의 차량 추격전을 경험하였다.		
8	위험한 영장을 집행하였다.		
9	근무중 심각한 차량사고(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한)를 경험하였다.		
10	근무중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11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12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		
13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		
14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를 목격하였다.		
15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을 목격하였다.		
16	폭행 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17	강간 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18	납치 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19	성폭행 당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20	학대받거나 방임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21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22	자연재해(예: 수해, 산불)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23	인재(예: 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Ⅲ. 다음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경험할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위에서 경험했다고 표시한 여러 사건들과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증상들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해당되는 문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없다	드물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많이 있다
1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그때의 감정 (느낌)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그로 인해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그 사건의 영상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그 사건에 관해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쓰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마치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 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 버리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땀, 호흡 곤란, 메스꺼움,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꾸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행동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해당하는 문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내 용	전혀 사용 안함	조금 사용	보통 사용	많이 사용
1	나는 믿음이나 종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2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곰곰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다른 측면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노력을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5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6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 일에 대해 농담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자신을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기도나 명상(묵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상황이 나아지도록 행동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다른 사람의 위안이나 이해를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그 일에서 무언가 좋은 측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16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거나 조언을 받아 들인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그 일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그것에 대해 덜 생각하기 위해 영화를 보거나, TV 시청, 독서, 수면 등과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한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책한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문제를 다룰 때 유머를 사용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24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그 일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인가 시도하는 것을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도움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①	②	③	④